

머리 PROLOGUE 말

특집을 기획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파안대소와 스위스식 인사법인 비주(bisous)가 시연된 다음날 문재인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뤄진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나 원 참. 언제부터 남북이 친구였고, 정상회담이 평범한 일상이었던 말인가? 현재 남북관계 변화의 속도와 차선변경의 진폭은 미중일의 역학관계라는 폭풍을 뚫고 모기 운전을 하고 있는 폭주족 오토바이를 연상시킨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은 그 오토바이 뒷좌석에서 멀미를 참아내고 있다. 이런 평화폭주족 같으니라고.

이번 호의 주제는 시기나 본지의 목적으로 보나 당연히 평창 동계올림픽이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이벤트의 의미와 비중이 너무 컸다. 손바닥 크기의 봉어를 기대하며 낚시 줄을 드리웠는데, 팔뚝보다 큰 메기가 걸린 셈이다. 특별한 재료는 보다 멋지게 조리해야 하는 법. 저녁식사의 재료는 당연히 메기지만, 딱히 적절한 레시피가 떠오르지 않는다. 게다가 워낙 의미가 큰 잔치라 지금까지 이에 대한 많은 논평이 있었고, 그런 공신력있는 기관이 한 발짝 떨어져서 고급지게 말한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자세히 소개되어 있기에 이를 반복하는 것은 아니다 싶었다. 그래서 이번 특집의 기획의도는 '틈새'였다.

우선 평창올림픽의 독해법부터 시작한다.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제관계가 너무 부각된 결과, 스포츠의 본질적 측면인 순수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스포츠의 순수성은 사회적 진공상태에서 논의될 부분은 아니다. 스포츠의 순수성이란 상식이 실제로 맞는지, 나아가 그런 식의 상식을 유통시킨 의도가 순수한 건지를 오히려 의심해야 한다. 케네디는 '진실의 적은 거짓이 아니라 신화'라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평창은 순수하지 못했기에 순수한 이벤트였던 것 같다. 스포츠의 순수성이 신화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평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리고 패럴림픽. 지금까지 올림픽이 본체의 자식이라면 패럴림픽은 서자취급을 받은 게 사실이다. 장애인 당사자는 아직도 불만이겠지만, 평창에서 패럴림픽의 서자취급은 방송의 노출이나 국민적 관심을 감안할 때, 패럴림픽의 흥길동 신세의 정도는 이전보다 훨씬 덜했다. 하여 평창 동계패럴림픽은 국민들에게 '따뜻과 의지의 평등성'을 공감하게 하고, 차별이 없는 세상을 향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킨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두 번째 장은 패럴림픽을 현



한태룡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정책개발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스포츠 사회학 전공
스포츠와 인간관계에 관심
05065@kspo.or.kr

장에서 관련자로 경험한 이의 일기장을 훑쳐보는 기회를 가져보기로 했다. 생생한 기록이란 이런 거라고 자부한다.

그리고 다른 두 개의 글은 ‘평창의 그늘’에 대한 이야기이다. 평창의 개막을 불과 1년을 앞둔 시기, 당시의 엄혹한 분위기에서도 시민단체와 방송사는 올림픽의 환경파괴를 비판했다. 그리고 예상을 뛰어넘는 올림픽의 성공과 상관 없이 당시의 비판은 현재진행형이다. 잔치가 끝나면 손님은 좋은 기억을 선물로 받고 집에 가면 되지만, 잔치를 치른 사람은 그 뒤의 설거지거리를 걱정해야 한다. 잔치의 규모가 컸으니 설거지거리도 많다. 이에 대한 국내외적인 시선을 천착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하였다. 평창과 환경이란 주제의 관계는 그야말로 ‘애증’이라 할 수 있다. 청산일색의 분위기에 찬물을 뿌리는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개인적으로 글을 올리는 게 부담스러울 법했던 필자의 용기에 감사드린다.

항상 그렇지만 이런 일을 하면서, 좋은 글쟁이를 만나는 건 매우 기쁜 일이다. 특집의 필자가 되신 네 분의 진지한 성찰과 깊은 논지에 감사드린다.

요즘은 행위 자체의 중요성이 그 행위의 의미나 해석을 넘어서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평창에서 발원된 이 평화의 물결도 그러한 듯하다. 이 물결의 도도한 흐름이 어디로 가야하는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입이 방정일거라는 염려에 아무도 쉽게 입을 떼기 힘들다.

평창올림픽 공식 온라인 스토어는 현재 남은 올림픽 상품을 절반가격 이하로 땡처리하고 있다. 때 이른 더위가 온 데다가 잡화나 의류는 동계용품이라서 그 값에도 팔릴지 의문이다. 개막되자마자 불티나게 팔려 당시에는 사지 못했던 평창굿스를 구입할 절호의, 그리고 마지막 기회로 보인다. 웃고 있기는 한데 그 웃음의 의미를 가늠하기 어려웠던 수호랑과 한쪽으로 눈이 치우쳐 있어 눈치를 보는 듯이 보이던 반다비와도 이렇게 헤어져야 하는 구나 싶다. 둘 다 큰 머리로 이곳저곳에서 고생 많았다. 잘 가시고 행복하시길....

그러다 보니 다음 특집의 내용은 ‘남북체육’이 될 듯한데... 이거 소화가 되려나??????

※이 글에 실린 내용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